

북핵 머리에 이고 사는 남쪽 국민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주변국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전망과 불교적 해법을 대북 활동 전문가들이 제시했다.

“화쟁 사상으로 남북 공존 모색해야”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1세기 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핵실험이 아니라 외부 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모두의 주체적의식이다. 주체적의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면 1세기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안보에 대한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을 동시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군사비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복지 교육 등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들의 의견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불교는 북한에서도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정신적 힘이 되어준 원호 서산 반해 스님은 그들도 존경하는 인물이다. 불교의 화쟁사상을 통해 남북이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제재 국면... 상반기 이후 완화



북한이 세계 국가들의 우려에도 핵실험을 진행한 데에는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에서 이유를 들을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핵이 더 이상 수가 늘어나지 않고, 성능이 향상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세계적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역시 최근 방한해 '3NO'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3NO' 정책은 북한이 핵의 수를 늘지 않게 하고, 성능의 향상을 막아야 하며,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수순을 밟게 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향상된 입지를 가지고 중국 한국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한동안 제재 국면을 벗어나긴 힘들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북한의 향상된 핵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뢰 프로세스' 자체가 이 같은 사태를 가정하고 만든 것이고 아직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약으로 현 정부보다는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불교계 역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층간 소음’ 갈등 해법은 공동체 구현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설 연휴에 벌어진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명경시풍조로 그대로 반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왜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되었을까?

아마도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려는 공짜심리,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사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희의식의 결핍,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피해의식이 자살과 분노범죄로 절정되어 인명까지도 경시하는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공동체사회의 재건을 통해서 소외계층에게는 보살핌을 받고 패자부활의 사회가 되는 보효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인명경시풍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질과 학습에도 그 원인이 있기에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와 가치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올바른 사회화과정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갈등을 빚는 곳은 어찌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사실, 횡간 범죄자의 80% 이상이 소외계층의 소수자라는 통계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치료, 놀이, 여가활동 등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소외된 소수자들에게는 그러한 호사로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소외된 소수자가 분노에 휩싸여 자살과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갈등을 빚는 곳은 어찌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갈등을 빚는 곳은 어찌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모든 소외된 소수자가 분노에 휩싸여 자살과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와 방향을 잘 조절하는 훌륭한 마부처럼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실한 마부이고, 다른 마부는 그저 고삐만 쥐고 있다는 법규정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진실 훌륭한 마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정보 문화재 관리 체계 정립 기대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정보 문화재 정보를 즉각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 시스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찰 주지 스님과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한 문화재 관리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도난범 등으로부터의 예방 효과도 상당하다.

이제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10년 동안 진행해 온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115점에 달했지만 일제조사가 시작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난 발생 사례는 총 22건에 그쳤다.

이전에는 장물로 정보문화재가 나와도 원

소재자 여부가 불투명해 유물이 됐지만 일제조사로 인해 소재지가 밝혀지면서 유물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도난 사건이 준 것이다.

김승수 불발비 귀부의 경우 사찰 측에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난 사실을 파악해 회수한 사례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정보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매장문화재와 사지를 파악하는 사지조사 사업과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의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보관리나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문화재가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것이다. 조사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인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 활용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극화 현상 해법 연구 환영한다

현 시대의 양극화 현상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현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과 전체 가구의 영끌지수(15.5%)의 차이가 사상 최대인 7.9%를 기록했다. 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불교계 내부에도 존재한다. 도농 사찰 간의 격차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농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산중·농촌 사찰들의 붕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올해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사회 양극화와 사찰 간 양극화 현상의 해법 찾기는 환영할 만하다.

사회 양극화 연구는 지난해 양극화 보고서 연장 사업으로 3루어 시대를 조망하고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진단한다.

총력연구 분야의 종단 기초 재정연구에서는 도농 사찰간 양극화 현상과 재정 자립 방안, 전국 사찰 재정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사찰 양극화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 마련은 다른 종교에 비해 늦은 편이다. 개신교는 농촌 교회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연구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신교는 연 2500~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교회를 국민교회로 분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 역시 근년 사찰의 재정 현황과 자립 방안, 중앙·지방·교구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안들은 국가와 사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교와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불교계가 추진하는 양극화 연구는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화제의 신간 새로운 천년의 터. 천년의 풍수역사를 정리한다. '영부적 대사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사주학핵심비결' 사주학의 목격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하게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